

자동차·가전 ‘쌍두마차’ 수출 주도 지역경제 버팀목

광주·전남 경제 전망

2010년 지역 경제가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광주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사상 첫 연간 생산 40만대를 돌파했고, 삼성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생활가전도 수출에 힘입어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반면 건설 경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다.

신묘년 새해, 희망을 꿈꾸지만 지역 경제는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경제와 밀접하고 연관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경제 지표는 'FTA 효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산업 '맑음' = 새해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 중 자동차·가전·석유화학의 경기는 맑은 반면 건설·조선은 여전히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주력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등 악재를 딛고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내는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

올해도 미국·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타결된 국가들의 비준과 발효를 앞두고 있는 데다 세계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자동차·가전·석유화학 등의 수출 실적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설비 투자 및 인프라 확충, 일자리 등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세계 혜택을 받아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0만대 재편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올해 사상 첫 40만대 돌파를 넘어 '40만대 생산'이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적자를 기록한 삼성광주전자는 1월 삼성전자와 합병했다. 삼성전자로 간판이 바뀌면서 '삼성'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상품 위주로 전략을 전환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과감하게 해외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새 주인(이런계 다국적기업 엔텍합그룹)을 맞아 설비투자를 늘리고 신제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우일렉은 엔텍합의 기반인 중동·아프리카지역 공략을 통해 올해 10% 이상 성장 목표를 내놓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철강산업과 GS칼텍스·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분야도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혼동 불개=얼어붙었던 광주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면 신규 분양시장에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



지난해 사상 첫 40만대 돌파를 이룩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제1공장 쏘울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마지막 조립 및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50만대 재편 ‘글로벌 경쟁력’ 광주·전남 中 小 “내년 지역 성장률 4.0%” 전망 미분양 급감 부동산시장 회복 ... SSM갈등 여전

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건설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지역 건설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물량이 4대강 사업에 쏠리면서 신규 SOC 사업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관급공사 비중이 55%로 민간 물량보다 의존도가 높는데 올해 관급공사물량이 3분의1 가량 줄어들어 힘겨웠다”면서 “내년에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중소규모 신규물량이 거의 사라져 지역 건설업계는 더욱 추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내년 성장률 4.0%”=지역 중소기업들은 올해 광주·전남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또 경제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업황 전망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국 예상 경제성장률 4.2%에 비해 0.2%포인트 낮지만 지역 지표로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경제성장률 상승과 함께 글로벌 경기회복을 예상하면서 신규 채용과 설비 투자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 광주·전남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및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축소되면서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

림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 누가? =올해 금융권 최대 관심사는 잠정 중단된 광주은행 민영화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방안으로 민영화를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영화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역 금융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블록세일(대량매매), 수의계약 등 민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별도로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역정서가 혼재돼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

이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느슨해진 규제와 과열 경기를 틈타 부실사업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잠재적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조 8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나 일부 은행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생존권 건 SSM 갈등 여전=지난해 광주지역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 시도가 잇따르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대형 유통업체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사회에서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 유통업체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생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별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은 ‘가치소비’가 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점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로 신규 점포 확장이 어려워져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남원

Green City

시민이 감동하는 시대 새 희망 남원이 만듭니다

지리산중심권 미래생태녹색 명품도시-남원
제4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로 선정돼 자연환경보전과 녹색생활환경 개선 등 탄소 제로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명품도시로 발돋움합니다.

요천, 광안루, 지리산둘레길3코스, 습지